

2023
고3
3월 학평

2023년 시행 고3 3월 학평 국어 문학 | 장수산1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벌목정정(伐木丁丁)**(‘벌목’은 나무를 베는 것, ‘정정’은 나무를 벨 때 나는 소리임. / 청각적 이미지) **이랬거니**(: 예스러운 어미 활용) **아름드리 큰 솔**(둘레가 한 아름이 넘는 큰 소나무)이 **베어짐직도 하이**(= 베어질 법도 하다. ⇒ 화자는 나무가 벌목되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님.)(**화자에 대해 묻는 문제에 나무가 벌목되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끝이 울어 멩아리 소리 찌르렁**(청각적 이미지) **돌아올 직도 하이**(= 돌아올 법도 하다. / ‘~도 하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 큰 소나무가 베어지면서 쓰러지는 소리가 멩아리가 되어 돌아올 것만 같은 상황(청각적 이미지)을 통해, 오히려 장수산의 고요를 부각함.)(**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효과에 관해 출제될 가능성이 큼이다. 청각적 이미지 외에도 공감각적 이미지도 여러 번 쓰였으므로 표현상 특징에 언급될 수 있습니다.**) **다람쥐도 쫓지 않고 멩새도 울지 않아**(장수산의 적막한 분위기를 부각함.)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장수산의 깊은 고요함. / 감각의 전이(청각의 촉각화)) **눈과 밤이 종이보담 희고녀!**(화자가 장수산을 걷는 구체적 시간적 배경(겨울밤)이 드러남. /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통해 하얗게 눈이 내린 겨울 달밤의 고요한 장수산의 분위기를 부각함. / 영탄법)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보름달이 뜬 밤에 골짜기를 걷는 상황을 운치 있게 표현함. / 설의법) **웃절 종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웃절 중’은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 초월적 경지를 보임.)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여유와 자족의 초월적인 정신적 세계 / 조찰히: 아담하고 깨끗하게)를 좁는다?]([] :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화자가 좁는 것은, ‘웃절 중’의 정신적 경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임. / 감각의 전이(후각의 시각화))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는 흔들리는 내면과 대립됨. / 화자의 내면적 동요 → 고요한 장수산에 쉽게 동화되지 못하는 화자의 내적 고뇌)(‘바람도 일지 않는’과 ‘심히 흔들리우노니’를 대비하여 시적 화자의 내적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으며, 이 내용을 틀린 선지로 체크하여 3월 고3 학평 국어영역 문학 파트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오오 견디란다 차고 울연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슬픔도 꿈도 모두 적막에 묻고 시름을 이겨 내겠다는 다짐 / 영탄법 / 울연히: 홀로 우뚝한 모양)]([] : **장수산에서 화자의 시름이 극복되었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화자는 장수산에서 시름을 견딜 의지를 보일 뿐, 시름을 극복한 것은 아닙니다.**)

- 정지용, 「**장수산**(①세상과 단절된 절대 고요의 공간 ②‘웃절 중’의 이미지와 동질적 ③화자가 세속적 욕망을 떠나 무념무상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공간)1」

핵심 정리

- 갈래: 산문시, 서정시
- 성격: 산문적, 서술적, 탈속적, 초월적, 동양적, 감각적
- 제재: 장수산 속의 고요함
- 주제
 - 탈속적 삶에 대한 동경
 - 암울한 시대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
 - 고요하고 청정한 세계에 안주하고자 하는 동양적 세계관
- 특징
 - 청각과 시각을 통해 산중의 정경을 형상화함.
 - 고어의 사용하여 고전적이고 우아한 느낌을 줌.
 - 선경후정의 수법으로 시상을 전개함.
 - 시행의 종결을 의도적으로 거부함.
 - 탈속적,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는 태도
 - 예스러운 말투를 통해 자연에서 받은 감흥과 신비로운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함.
 - 의문 영탄조로 화자의 감흥을 직설적으로 드러냄

이해와 감상

[1]

이 시는 깊은 겨울 산의 고요한 정경을 '벌목정정'을 통해 환기하며 시작한다. 다람쥐도 쫓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는 절대 고요와 부동의 공간 속에서 화자는 조차히 늙은 옷절 중의 맑고 깨끗한 정신적 경지를 뒤따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그렇지만 화자는 바람도 일지 않는 깊은 산에 쉽게 동화되지 못하고 심히 흔들리는 내면의 동요를 느낀다. 그러면서도 차고 울연히 이 겨울을 견디겠다는 견고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며 시상을 마무리한다. 흔들리는 내면의 시름 속에서도 정신적 긴장을 늦추지 않는 화자의 치열한 정신적 고투가 역력히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2]

이 시는 정지용의 동양적 은일(隱逸) 정신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산문시의 형태를 갖춘 이 시는 고요하고 청정한 깊은 산 속의 눈이 하얗게 내린 밤을 배경으로 한다. '벌목정정', '쩌르렁' 등은 이 산골의 정적감을 나타낸다. 아무도 없는 산의 고요한 정적은 내 뼈에 스며오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할 정도이고 하얗게 눈 덮인 산속 풍경이 고요함을 더해 준다. 산골 밤에 보름달이 떴는데 그 빛나는 모습에 청결하고 고요함이 더해진다. 여섯 판에 여섯 번을 지고도 웃는, 집착을 벗어난 사나이를 통해 동양적 은일 정신이 잘 드러난다. 마지막에 인간의 번민은 바람 한 점 없는 정적 속에서도 흔들리니 시인은 모든 일체의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장수산 속의 고요한 겨울밤을 견디어 보겠다고 다짐한다.

[3]

이 시의 형식상 가장 특징인 것은 산문시의 형태와 함께 보이는 의고투의 언어 표출이다. '~이랬거니', '~고녀', '이랴다?', '~는다?', '~노니'와 같은 말을 보면, 고어를 일부러 사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위의 어미들은 모두 영탄과 관계되는 말들로 자연에서 받은 감흥을 직서적으로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며, 전통 시

가에서 보이는 표현들과 유사하다. 작가가 초기 시에서 세계를 사물화하여 즉물적으로 제시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이질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산문율의 유장한 가락에는 잘 어울리는 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시적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시를 문장 단위로 끊어보면 6단락이 된다. 6번째 단락은 형식적으로 다시 2, 3조각으로 나눌 수 있지만, 내용과 관련하여 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단락 1과 2는 연속되어 있다. '벌목정정'은 나무를 베는 찢찢한 소리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나무를 베는 뜻이 아니고, 아름답드리나무가 울창한 숲의 장엄함을 일컫는다. 이렇게 울창할진대 눈에 덮여 베어지듯 찢어질 만도 하다는 것이다. 벌목정정 나무 쓰러지는 소리가 골짜기에서 메아리로 찢르릉 돌아올 만도 한 울창한 숲이라는 것이다. 단락 3은 이 울창한 숲은 적막만이 가득한데 눈 내린 밤이 종이보다 희다는 것이다. 단락 4는 때마침 보름달이 뜬 것도 달이 한밤중 이 골짜기를 걷기 위해서인가 하고 생각한다. 단락 5는 이 산에 사는 웃절 종이 남기고 간 체취를 산이 쭈고 있다 한다. 여기서 조찰히 늙은 종의 이미지와 여섯 판을 내리 지고도 여유 있게 웃는 종의 자족과 여유의 정신이 장수산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 고요 속에 화자가 시름에 흔들리는 것을 그린다. 그러나 그 시름을 차갑게, 울연히 견디겠다고 한다. 슬픔도 꿈도 이 장수산 속의 겨울 한밤의 고요 속에 묻어 버리려고 한다.

결국 화자가 그리려는 세계는 장수산의 신비로울 정도로 고요한 세계이다. 인적이 없는 절대 고요의 공간, 그곳에는 눈에 휘어진 가지만이 찢르릉 소리를 내며 베어지는 공간이며, 흰빛으로 표상되는 허적(虛寂)의 공간이다. 그곳에 깃들인 사람은 속인이 아닌 도승일 뿐인데, 이 도승의 이미지는 장수산의 신비와 고요를 더욱 심화한다. 장수산에 화자마저 묻혀 세속사를 잊은 절대 고요에 잠기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인의 관심은 단락 6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수산이란 세계 자체에 놓여 있다. 그 세계는 희고 신비로우며 청결한 곳이다. <인동차>에서 그린 산중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게 된다.

[3]

겨울 장수산의 순수하고 고요한 세계, 웃절 종이 풍기는 초월적 모습 등을 통해 탈속적 세계를 지향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이 시는 산중의 시각적 심상을 통해 정밀하게 형상화되고 있다. 이 작품의 시적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겨울 달밤의 장수산으로, 밤의 정밀과 고요는 눈 덮인 산중의 달밤을 하나의 깊은 정신적 공간으로 새롭게 형상화하고 있다. 즉, 이 작품은 고요한 자연의 정경과 깊은 내면 의식을 교묘하게 조화시켜 놓음으로써 시적 표현이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성취를 보여 준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시어는 '고요'라는 말이다. 장수산이라는 시적 대상을 하나의 정밀의 세계로 형상화하는 데에 있어서 '고요'라는 시어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은 시적 대상과 대응하는 서정적 자아의 내면 의식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장수산의 고요 속에서 오히려 서정적 자아의 내면 의식은 깊은 시름으로 빠져든다. 그러나 그 시름을 견인(堅忍)의 정신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이 같은 의식은 인간과 자연이 일체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의 구성에서 의도적으로 시행의 종결을 거부하여 호흡을 지속시키고자 한 점이라든지, 내면 의식의 추이를 보여 주는 일종의 독백적 어투 등을 시적 진술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모두 이 같은 과정을 형상화하기 위한 기법적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는 7개의 문장 단위로 끊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문장에서는 커다란 나무를 벨 때 울리는 찢러 찢러 소리란 뜻하는 '벌목정정'이라는 시구로 시작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무를 베는 뜻이 아니라 벨 때 그런 소리를 낼 만한 아름답드리나무가 울창한 산의 장엄함을 표현하고 있다. 둘째 문장에서는 그러한 나무가 쓰러졌을 때 그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찢러 찢러 골짜기를 울리면서 돌아올 만큼 깊은 산골임을 말하고 있다. 셋째 문장에서는 그 골과 울창한 숲은 작은 짐승의 움직임조차 감지할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눈 내린 밤은 종이보다 희어 그 적막감이 화자의 마음 깊이 사무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문장에서 화자는 오늘 같은 날 때를 맞추어 보름달이 떠오른 것은 지금 같은 밤 분위기와 어울리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다섯째 문장에서는 화자는 여섯 판을 내리 지고도 여유있게 웃고 돌아간 늙은 종의 맑고 깨끗한 모습을 생각하는데,

늪은 중의 탈속적 모습이 장수산의 또다른 이미지가 되고 있다. 여섯째 문장에는 고요 속에 밀려오는 시름에 흔들리는 화자의 내면이 드러난다. 그러나 마지막 문장에서 화자는 그 시름을 차갑고 의연하게 견디겠다고 말한다. 슬픔도 꿈도 모두 이 장수산 속의 겨울 한밤의 적막 속에 묻어 버리겠다는 것이다.

서지정보

저자 김정혜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3561-3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3331

가격 500원

값 500 원



9 791137 735613

ISBN 979-11-377-3561-3 (EPUB2)